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3면	"35만 강원노인 특별자치도 출범 성공 밑거름 될 것"	1
江原日報		35만 강원 노인회원 힘모아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다짐[1/...	2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문화유산콘텐츠발굴연구회 세미나 개최	4
강원도민일보	04면	김용래 도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탄원서 제출	4
江原日報	01면	"농지 규제 완화로 토지이용 효율성 높여야"	5
江原日報	02면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국회포럼	5
江原日報	01면	'강원특별법' 4월 통과 기대감 여·야 23일 행안위 상정 합의	6
江原日報	03면	강원특별법 위해 맞손	6
江原日報	03면	“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尹 대통령 고뇌 어린 결단 ”	7
江原日報	04면	"학폭 심각한데..." 담당 변호사 없어 골머리	8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학생진단평가 "일제고사 부활" vs "알권리 충족" 대립 ...	8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 2청사 강릉 개청 임박, 춘천시 인구사수 절박	9
江原日報	02면	원주 수출 938억 늘고 춘천 357억 강릉 238억 줄어	9
江原日報	01면	3년만에 다시 맞은 크루즈 관광객	10
江原日報	02면	속초항 3년 만에 국제 크루즈선 입항	10
江原日報	13면	"크루즈 관광객 왔다" 속초 상경기 활력	11
江原日報	01면	건조주의보 속 강풍 도내 곳곳 산불 비상	12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도의원 송곳 역할해야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반려동물 시장, 주력 산업화 필요	14
江原日報	19면	[사설] 道 에너지 공급률 100%, 데이터센터 최고 적지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일자리·주거 등 종합적 대책 있어야 출산율 늘어	16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
인물 23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는 13일 홍천축협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35만 강원노인 특별자치도 출범 성공 밑거름 될 것”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인회 도연합회(회장 이건설)는 13일 홍천축협에서 도연합회 대의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신경호 도교육감과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신영재 홍천

군수등도 참석해 격려했다.

이날 신경호 교육감은 “어르신들이 즐기는 파크골프 대회 현장을 학생들이 도함께 즐길 수 있는 소통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건설 회장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해이므로 35만여 명의 강원노인 모두 힘을 합쳐 성공의 밑거름이 되자”고 말했다. 김진형·이시명

35만 강원 노인회원 힘모아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다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제1차 정기총회 개최
신경호 교육감·신영재 군수 참석 홍천서 열려
노인취업 활성화 및 노인회 위상 제고 추진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이건실)는 13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신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는 올해 노인취업 및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와 조직정비를 통한 노인회 위상 제고에 나선다.

노인회 도연합회는 13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이경희 도복지국장, 신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도연합회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올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회 권한사항 일부를 회장 및 이사회에 위임하는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이건실)는 13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신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올해 주요사업으로 강원도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4월중 홍천) 제21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5월11일~12일 전남 순천) 제1회 강원도 세대공감 파크골프대회 개최(6월~7월중 화천) 제8회 강원도 세대공감 한궁대회 개최(9월중 인제) 제10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참가(10월중 충남) 제26회 강원도 노인의 날 행사-13회 어르신 한마당축제(10월중 평창)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 노인 행복을 위해 노인취업과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연합회 임원 워크숍, 임·직원 회의 및 교육, 연합회 직원 및 사무국장 직무교육, 노인소식지 발행, 연합회장 및 지회장 간담회, 시·군지회 우수자 연합회장 표창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이건실)는 13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신 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무궁화에 고장에서 열리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문화 관광도시 홍천은 어르신들과 함께 강원도가 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건실 도연합회장은 "올해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도내 35만여명의 노인은 모두 힘을 합쳐 성공을 기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 발전할 수 방안을 찾아 노인들이 존경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이건실)는 13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신 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이건실)는 13일 홍천군 홍천축협 갈마로점 대회의실에서 신 경호 도교육감, 신영재 홍천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13일 (월)
종합

[포토뉴스] 강원문화유산콘텐츠발굴연구회 세미나 개최



강원도의회 강원문화유산콘텐츠발굴연구회(회장:김정수 도의원)는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새 강원의 출발과 가치의 재발견'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4면

김용래 도의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탄원서 제출

속보=강원도의원들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3월 8일자 27면 등) 관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용래(강릉) 도의원은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방문해 도의원 총 49명의 서명이 담긴 강릉 급발진 사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의원은 교통사고특별법으로 형사입건된 강릉 급발진 사고 운전자 할머니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무죄 입증을 돕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직접 동료 의원들을 찾아가 탄원 서명을 받았다. 탄원서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피탄원인 A씨가 비정상적 가속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래 도의원은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방문, 도의원 총 49명의 서명이 담긴 강릉 급발진 사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용래 도의원은 "안타까운 사고에 여야없이 동참해준 분들께 감사하고, 운전자의 무죄가 입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1면

“농지 규제 완화로 토지이용 효율성 높여야”

道·이양수 의원실·도국회의원協·본보 특별자치도 포럼-농지

새로운 미래 강원특별자치도

불합리한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집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도서관에서 강원도와 이양수 국회의원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일보사 공동 주최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국회포럼-농지 분야’에서 박석두 GS&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농업 경영 규모 확대보다 농지 이용 집적을 위한 집단화와 조직·법인 경영을 육성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재형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지규제 완화는 우량 농지 보존에 악영향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농지의 전면적인 해제보다는 효율적인 농지 보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은 “농식품부는 강원 특별자치도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데 지방자치체를 모르는 말”이라며 “의회, 환경단체,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난개발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국민의힘 이철규·유상범·노용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김용복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도 참석해 제주의 경험 등을 전했다.

김진태 지사는 “철원의 경우 절대 농지라고 했던 농업진흥지역이 105%다. 5%는 농토도 아닌데 불합리한 규제를 받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강원도의 농업진흥지역은 4만4,000여ha에 달한다. 강원도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한 만큼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2면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국회포럼 강원도와 이양수 국회의원,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강원일보사가 주관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국회포럼-농지 분야’가 13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 이철규·허영·유상범·노용호·위성곤 국회의원,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1면
서울=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1면

‘강원특별법’ 4월 통과 기대감 여·야 23일 행안위 상정 합의

김진태 도지사 국회 방문
與 김기현 대표 지원 약속
野 역시 초당적 협력 다짐

여야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지원을 약속하며 ‘4월 통과’에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13일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차례로 면담, 이 같은 약속을 이끌어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의 면담에는 수석대변인인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강원도당위원장과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국회의원도 함께

자리해 힘을 실었다. 김기현 대표는 김진태 지사에게 “당연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여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김 지사와의 면담 이후 국회에서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국회포럼에 참석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야가 한뜻이며 강원도당의 당원이라는 생각으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장제원 위원장은 “당장 오늘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시키자”며 전문위원실에 즉각 문의했다. 업무보고 등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장 위원장은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등을 불러 모아 23일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까지 바로 상정시키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강원특별자치

도법 통과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행안위 야당 간사에게 직접 강원특별법 통과를 두 번이나 강조했다.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상정될 것이라 예상한다. 빨리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 국회의원도 강원일보사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릴레이 국회포럼에 참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는 “장제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님들이 법안 상정을 이달 내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눈물 이 날 정도다. 이제 상정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아 있다. 6월 출범까지 중간에 빠졌었다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여야의 협치가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최기영·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3면



강원특별법 위해 맞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3일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유상범·노용호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3면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尹 대통령 고뇌 어린 결단”

김진태 지사 ‘동의’ 밝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 라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절대 잊 어선 안 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해서 일본 측에서 다 끝났다는 식의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고 일본 측에서 불행했던 과거 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끊이지 않는 학교폭 력에 대한 근절 의지도 드러냈다.

김 지사는 “춘천시 80여곳의 학교 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고작 4명뿐” 이라며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현장 인력 증원을 강구할 방침”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을 위한 이동형 청소년쉼터 버스는 1대가 도 전역을 다니고 있어 실효 성을 늘릴 방법을 찾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폭력 없 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 9일 경찰과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개 최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교육 현장을 찾아 학교 전담 경찰관 등 학교폭력 예방 대책 등을 점검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서 는 민·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한 명확 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운전자 할머니에 대해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을 넘어 정확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 무혐의 처분이 가능해졌으면 한다”며 “도에서도 도 을 일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jyh89@kwnews.co.kr

2023년 03월 14일 (화)
사회 04면

江原日報

“학폭 심각한데...” 담당 변호사 없어 골머리

도내 정원 7명 현재 3명 불과
원주교육청 1년 넘도록 부재
임기제 등 열악한 처우 영향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관련 분야의 법률 지원을 담당할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재공고했다. 춘천교육지원청과 원주교육지원청에 각각 2명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지원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다.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

안 법률 지원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사안 사전 검토 지원 및 참석 등의 업무를 한다.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는 올 1월 시작했으나 아직도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부터 학폭위 지원 변호사 채용을 위해 권역별로 각각 13차례씩 공고를 냈다”며 “한 달에 한 번꼴로 공고를 낸 적도 있는데 모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본청에 1명을 비롯해 춘천권과 원주권, 강릉권에 각각 2명씩 총 7명의 학폭위 지원 변호사

정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근무 중인 변호사는 본청 1명, 강릉 2명 등 3명이다.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 학부모, 담당 교사, 장학사 등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데다 최근 학폭 심의건수도 증가 추세여서 해당 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처우다. 도교육청 본청에 근무할 학폭위 지원 변호사는 5급 교육공무직, 권역별 변호사는 6급 임기제 처우를 받는다. 이전 경력도 반영되지 않고 수당 및 상여금도 제한적이다.

통상적인 변호사 수입을 고려하면 매우 비현실적이다.

여기에 지자체와 광역·기초의회까지 변호사 채용에 적극 나서면서 ‘변호사 모시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강원도교육청이 처우 개선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전체 직급별 정원을 고려해야 하고, 강원도의회와의 논의도 거쳐야 해 쉽게 추진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히 보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수당을 추가하거나 이전 경력 인정, 주거지 개선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4면

강원학생진단평가 “일제고사 부활” vs “알권리 충족” 대립 여전

올해 2년차를 맞이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두고 강원도교육청과 도내 일부 교육계의 대립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 강원학생진단평가는 초등학교 7월 5일, 중학교 7월 12일로 결정돼 모든 학교가 같은 날 시험을 본다. 대상역시 소폭 확대돼 올해는 기존 응시대상인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됐고, 진단평가 이후 학년별 백분율도 공개한다.

도교육청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도내 교육계 일부는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강원지부, 강원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강원네트워크 등 4개

단체는 13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문에서 “일제고사의 부활로 계속 나가겠다는 야욕을 감추지 않았다”면서 “도교육청은 무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교사들을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 구도를 조장했다. 교사들은 평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지필평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파악된 미도달 학생에 대한 지원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다.

전교조는 △강원학생진단평가 폐지 △기초학력·평가정책 추진 전 공론화 기구 설치 △전교조-도교육청 단합 공격 부당노동행위 중단 △학교 자율성, 교사평가권 존중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시험 날짜를 나눠 진행하면서 시험지 보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면서 “백분율 공개는 줄세우기가 아닌 학부모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다. 정보 공개 방식은 여전히 고민 중”이라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1면

강원도 2청사 강릉 개청 임박, 춘천시 인구사수 절박

행안부 조율 조직개편 급물살

7월 본청 인원 150여명 이동

춘천시 인구전출 우려 민감

도에 순환근무 등 검토 요구

속보=오는 7월 강원도 제2청사가 강릉(본지 2월 27일자 1면)에 들어서면서 조직과 인구 전출이 불가피한 춘천이 인구 지키기에 비상이 걸렸다.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인 제2청사 개청을 위한 지방 2급 신설에 대해 도는 행정안전부와 사실상 조율을 이뤄 조직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도청 신청사를 준비 중인 춘천시는 조직감축으로 인한 관련 기관의 이전과 인구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 결과, 2청사 개청에 따른 도청 조직개편안은 이달 중하순쯤 최종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도는 2청사 상주 인원을 340명 규모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50여 명 안팎의 도본청 인원이 2청사로 이동해야 한다.

도는 국(局) 단위 기구 규모 등 행안부와 협의와는 별개로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와 '인구 전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 공약 조기 이행이라는 측면과 함께 도본청은 영서권, 2청사는 영동

권에 소재한만큼 지역균형발전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구 전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 춘천시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춘천은 내년까지 인구 30만명 돌파를 목표로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까지 춘천 인구는 29만949명으로 전년도 222명 늘었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선 9000여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춘천 시민인 150여 명의 도본청 공무원이 2청사로 이동하고, 관련 기관과 가족까지 함께 이동한다면 인구 전출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춘천시는 2청사 개청에 앞서 본청 이동 직원 규모를 사전에 알려달라는 뜻을 최근 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동 인원 만큼 도청 정원을 늘리거나 직원 순환근무를 시스템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도지사 공약 사항에 대해 춘천시가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역에 미치는 여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본청 실국은 11개로 하고, 2개 국(局)만 2청사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원특별자치도를 한시 국으로 전환하고 보건체육국과 복지국 등의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2청사는 1단계로 지방 2급 체제로 3개 국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박지은·오세현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2면

원주 수출 938억 늘고 춘천 357억 강릉 238억 줄어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시장 호조·K-푸드 열풍 수혜
춘천·강릉은 동반 감소... 중국 경기 침체 악영향 끼쳐

지난해 강원도가 사상 최대 8년 연속 적자 행진에도 불구하고 원주지역 수출액은 7,209만 달러 증가하며 도내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춘천과 강릉은 각각 2,744만 달러, 1,831만 달러 동반 감소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13일 기준 환율로 환산하면 원주는 938억 원 더 벌었고, 춘천은 357억 원, 강릉은 238억 원 각각 줄어든 셈이다.

본보가 한국무역협회의 K-stat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주지역 수출액은 10억3,686만 달러(환율 1,300원 기준, 한화 1조3,488억 원)로 전년 대비 7,209만 달러(7.5%·한화 938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주시는 도내 지자체 중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 실적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역 내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2,398만 달러 증가했고, 2위 면류(라면)와 3위 의료용전자기기도 각각 3,852만 달러, 1,376만 달러 늘었다. 원주의 수출 상승세 원인으로는 글로벌 친환경 자동차 성장의 낙수 효과와 'K-푸드' 열풍의 수혜가 꼽힌다. 만도를 위시한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성장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 인기가 주요 원인이다.

2022년 수출액 기준 도내 2위는 동해지역이 차지했다. 수출품 1위는 DB메탈 동해공장 등에서 생산하는 합금철, 2위 품목은 LS전선의 전선

이다. 3위는 흥천인데 삼성메디슨의 의료기기 수출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 코로나19 완화로 해외 의약품 수요가 줄고 도내 화장품과 시멘트 주로 수입하던 중국의 경기 침체가 춘천과 강릉 등의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

춘천은 지난해 3억3,407만 달러(한화 4,345억 원) 수출 실적을 기록, 전년 대비 2,744만 달러(7.6%·한화 357억 원) 감소했다. 지역 수출품 1위인 의약품 수출액이 2,308만 달러 줄고, 2위 품목인 화장품도 497만 달러

감소했다. 강릉의 경우도 1위 품목인 주류 수출액은 125만 달러 늘었지만, 2위 시멘트 수출액이 1,764만 달러나 급감했다. 이에 강릉은 지난해 수출 1억4,364만 달러(한화 1,868억 원)로 1년 전 대비 1,831만 달러(11.3%·한화 238억 원) 감소했다.

한편 증감률로 보면 태백지역 수출실적이 타이어와 압연기 수출 호조로 31.3% 증가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삼척은 강릉과 함께 시멘트 수출 부진으로 실적이 55.3% 감소하면서 도내에서 가장 저조했다. 강동휘기자 yulnyo@



연합뉴스

3년만에 다시 맞은 크루즈 관광객 13일 오전 속초항에 입항한 크루즈 아마데아호가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 정박해 있다. 여행객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한 것은 2020년 2월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이다. ▶관련기사 2·13면

속초항 3년 만에 국제 크루즈선 입항

독일 국적 아마데아호 국내 크루즈항 문 열어... 총 915명 탑승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국내 크루즈항에 뱃고동이 다시 울렸다.

13일 독일 국적 크루즈선사인 아마데아호(AMADEA, 2만9,008톤급)가 코로나19 이후 국제 크루즈선으로는 처음으로 속초크루즈터미널에 입항하면서 국내 크루즈항의 문을 열었다.

이날 속초항에 입항한 아마데아호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적의 60~70대 관광객 등 600명과 승무원 315명 등 총 915명이 탑승했다. 이들은 속초에서 1박을 하며 설악산

과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등 속초지역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 관광에 나섰다.

속초항에 외국적 크루즈선이 입항한 것은 2020년 2월 외국적 크루즈선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5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크루즈 관광이 속초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트세일과 양양공항과 연계해 플라이 앤 크루즈 관광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원도와 속초시, 한국관광공사는 아마데아호 승객과 승무원들

을 상대로 환대 행사를 갖는 등 본격적인 크루즈 방한(訪韓) 상품 개발의 신호탄을 쏘았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속초를 찾는 크루즈선은 아마데아호를 포함해 총 6항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다음 달 29일에 2만8,000톤급 실버위스퍼호(승객 382명, 승무원 200명 승선 규모)가, 6월12·17·23일에는 11만4,000톤급의 코스타 세레나(승객 3,780명, 승무원 1,050명 승선 규모)가, 10월21일에는 8만2,000톤급 웨스터담호(승객 2,370명, 승무원 812명 승선 규모)가 입항 예정이다. **허남윤·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지역 13면

“크루즈 관광객 왔다” 속초 상경기 활력

3년 만에 승객 600명 태운 아마데아호 속초항 입항
승객들 1박 하며 설악산·관광수산물시장 등 둘러봐

【속초】“코로나19 이후 첫 크루즈에 즐거운 여행 기대돼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년 2월 외국인 크루즈선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에 첫 외국인 크루즈선이 13일 속초항에 입항했다.

이날 입항한 독일 국적 2만 9,000톤급 아마데아호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적의 60~70대 관광객 등 승객 600명과 승무원 315명 등 915명을 태우고 전항지인 일본 니이가타를 출항해 이날 오전 속초항에 도착했다.

첫 번째 하선 승객은 독일인

랄프 랑거와 크리스타 랑거씨 부부다.

이들 부부는 “10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뒤 이번이 2번째 방문”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많은 상점이 문을 닫는 등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관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끝나게 돼 즐거운 여행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속초시와 강원도관광재단은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해 첫 번째 하선 승객인 랑거씨 부부와 60번째 하선 승객인 독일 국적

클라우스 헤셸씨에게 방짜유기 수저세트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관광객들은 속초에서 1박을 하며 설악산과 속초관광수산물시장 등 속초지역 관광지를 둘러보거나 서울 등 수도권 관광길에 나섰다.

속초시와 강원도, 해양수산부는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입항을 기념하며 환영행사를 열고 시립풍물단의 길놀이로 이들을 맞았다.

환영행사에 참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올해 국내에 160항차 정도 크루즈선 입항이 계획돼 있고, 26만명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루즈 산업을 좀 더 육

성해 2027년까지 50만명 이상이 한국에 입항하게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5개월 만에 대한민국 최초로 크루즈 관광이 속초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포트세일과 양양공항과 연계해 플라이 앤 크루즈 관광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악산을 비롯한 시티투어뿐만 아니라 설악권, 특히 DMZ관광을 중심으로 이웃 지자체단체와 함께 연계하는 상품을 만들고, 북방과 연계되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잇는 환동해 중심의 크루즈 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종합 01면

건조주의보 속 강풍

도내 곳곳 산불 비상

동해안 강한 너울 예보

14일 강원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풍이 불면서 화재 위험이 커졌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3일 오전 10시를 기해 원주, 태백, 영월, 동해평지, 삼척평지, 평창평지, 정선평지, 남부산지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했다.

이어 14일 밤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속 90k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고 대기도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동해중부 바깥 먼 바다에도 시속 30~6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도 높게 일겠다.

14일 낮 최고기온은 춘천 15도, 원주 16도, 강릉이 17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시민들은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동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고 있어 해안가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겸기자 lea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

사설/칼럼 19면

강원도의회 송곳 역할해야

-추궁형도정질문 많아야 견제감시 제대로 한다

김진태도정 전반에 대한 사실상 첫도정질문이 3월 14일 시작됩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에 대한 의회 의정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견제수단으로 의원들이 질문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실태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문제, 도청사부지 결정 및 진행 과정, 제2청사 추진 등 굵직한 사안과 함께 경제침체기 골목상권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현안이 대두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독주는 전제 주민의 복리를 저해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방해하는 큰 요인입니다. 도정질문은 집행기관의 각종 행위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상황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점검하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책과 행정 능력에서 잘못된 행위와 안이한 태도가 있다면 따끔하게 지적해야 옳습니다. 같은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날카로워야 합니다. 의원들도 도정질문의 중요성을 알고 활동하고 있지만,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비판이나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정 사전지식 및 전문성 부족이 드러나는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도지사 및 관계자 등 집행기관에서의 소극적인 답변을 방치함으로써 스스로 영향력을 위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책집

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려면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궁형 질문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사실에 대한 단순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안을 내놓고 수용 여부를 묻는 정도에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문제점으로 노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대응에 비판을 가하고 책임을 물어 통제하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추궁형 질문은 의원이 풍부한 지식과 정보, 전문성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둘째, 의원에게 주어진 질문권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집행기관의 답변 반응을 포함해 연구 분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 및 관계자 답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가 요구됩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이나 소극적인 반응을 용인한다면 다음 도정질문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집행기관이 제대로 자치행정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도 엄정한 평가가 따라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는 일부 부서만 국한되지만, 의회의 질문제도는 집행기관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회나 마찬가지로입니다. 비단 도의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18개 시군의원 모두 해당됩니다. 의회에서 추궁하는 질문이 많아나 오길 기대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14일 (화)

사설/칼럼 19면

반려동물 시장, 주력 산업화 필요

-도내 10만마리시대 연계 관광 활성화 기회

반려동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양육비는 월 평균 15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15년 1조8000억원 규모였던 시장이 2020년 5조8000억원으로 커졌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7년에는 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여행 상품은 다양화하고, 업종도 세분화돼 이런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지자체는 반려동물 시장 확대를 관광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강원도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0만 3849마리로, '10만 마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도내 제4도시인 동해시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만 3334마리로 2021년대비 1만 309마리인 11.08%가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가 2만 5749마리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애완견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일명 '멍캉스' 관광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재활과 근육 강화를 돕는 헬스케어 제품 등을 개발하는 도내 기업들도 속속 등장합니다. 지자체들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한동안 중단했던

반려견 놀이터 '같이놀개'를 이달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도 반려견과 함께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릉시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고, 영월군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폐광기금 50억원을 들여 '도계 숲속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군뿐 아니라 강원도도 사료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2개 시범 사업에 3억 8700만원을 투입합니다.

변화하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에 맞추려는 도와 지자체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가 무한 경쟁에 돌입,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장 정부가 공모하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유치전에 대전과 전북 등 광역시·도가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는 '반려동물 특화구'를 선언하고 워터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 시군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고 시장을 선점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외지인들의 기호에 맞춰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 연계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사설/칼럼 19면

道 에너지 수급률 100%, 데이터센터 최고 적지

수백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데이터센터(DC)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도와 18개 시·군, 한국 전력공사 강원본부 등은 최근 도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갖고 강원지역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저렴한 전기요금, 재난 안전, 확장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다.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도와 18개 시·군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 춘천은 현재 강원지역에서 유일하게 민간 데이터센터(3곳)를 유치,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세수 효과를 보고 있다. 40MW급으로 강원지역에서 가장 규모

가 큰 네이버 춘천 각 데이터센터는 매년 86억원의 지방세를 춘천시에 내고 있고, 더존비즈온 춘천 D-클라우드센터는 매년 10억원의 지방세수를 납부 중이다.

데이터센터 유치가 성공하자면 우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읽어야 한다. 지난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방 입지 희망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지원하기로 했다. 어떤 데이터센터가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지역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것도 갖춰야 한다. 게다가 데이터센터는 지역에 엄청난 유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

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전국의 자치단체와 경쟁할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여기에다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 정치권까지 가세해 ‘지역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도내 자치단체들 간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선에서 ‘후보지’를 정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원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다. 그동안 강원도와 도내 시·군들은 국립한국문화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방사광가속기

등을 서울과 충북 청주 등지에 뺏기며 국책사업 공모에서 줄줄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도내 자치단체들이 그간 국책사업

도·18개 시·군, 본격 유치 나서 ‘주목’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 핵심

지역 입지 희망 기업, 맞춤형 지원 공략 나서야

유치전에 끊임없이 나서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센터 최종 유치를 위해선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강원도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논리적으로 잘 부각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다. 현재 147개 중 87개(59%)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 강원도로서는 데이터센터 유치에 기회다. 강원도가 데이터센터 입지의 최고 적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에너지 수급률이 100%를 넘는다. 도가 이를 적극 어필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강원도가 데이터센터 유치에 중점을 잡아 나가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14일 (화)

사설/칼럼 19면

일자리·주거 등 종합적 대책 있어야 출산율 늘어

인구 증가를 위해 시·군에서 아이를 낳는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의 ‘2022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강원도의 출산지원정책 예산은 1,857억3,500만원이다. 2021년 1,111억2,200만원보다 67.1% 늘어났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수치다. 도내 인구는 1970년 186만6,928명에서 2022년 기준 153만6,487명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시·군이 앞다퉈 출산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증액 경쟁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도내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2,3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출산지원금 정책은 몇 년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연구들이 나와 있다. 출산장려금이 배우자 있는 가정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계속 오르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 출산지원정책은 미혼 남녀에게 결혼과 출산의 유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인구증가정책의 출발선이자 한 부분일 뿐이다. 보육과 교육, 주거, 일

자리와 소득, 의료 등 종합적인 비전 아래서 정책 효용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는 강원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현안이다. 표면에 드러난 몇 가지 현상을 단기적으로 해소하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저출산은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점과 인과 관계의 결과물이다. 급여와 복지후생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출산율이 높고 전세나 월세보다 자가 주택을 보유한 가정의 자녀 수가 많다는 점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반대편에서 제시하는 지표다. 각 분야에서 꼼꼼하게 원인을 찾아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쇠퇴를 뜻한다. 인구 재앙을 막으려면 결혼과 출산 의욕을 저하시키는 환경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엄청난 지원금을 비롯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이 외려 뒷걸음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집값마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는가. 각 지자체가 인구 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